

순창 할머니 4인방 '좌충우돌' 랩 도전기

청년 강성군씨 랩 전수
가사에 담은 삶에 같이 울기도
다큐 제작 여가부 장관상 표창
세대소통·도전 화두 큰 반향

순창지역 할머니들의 신세대 음악 도전기가 화제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 할머니 4명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할미넷'이 제48회 국제에미상 결선후보에 올랐다. 할미넷은 결선에서 수상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할미넷은 '압정공주' 백성자(75), '꽃샘' 김영자(75), '부자입술' 오순례(69), '빅맘' 박향자(62) 할머니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을 가르친 강성군(28)씨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랩 음악을 했던 청년으로 고향인 순창으로 내려오면서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었다. 강씨는 순창국악원 행정업무를 맡으면서 합합



순창지역 할머니 4명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 '할미넷'이 제48회 국제에미상 결선후보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순창군 제공>

교실을 통해 지역의 할머니들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랩의 기본조차 몰랐던 할머니들은 랩을 배

의 개성 넘치는 랩이 탄생했다. '어릴 적 산골짜기 전기가 없는 초가집' (박향자), '남은 다섯 식구 얽만 너희의 지방' (백성자) 등 각자 여덟마디를 랩에 담았다.

할머니들은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제23회 순창군 노인의 날 기념식에도 실력을 뽐내며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년들만의 점유율로만 느껴졌던 음악 장르를 할머니들이 소화하며 주목받았으며 지난해 KBS전주방송에서 특별기획으로 방영된 이후 올해 다시 한 번 다큐인사이드에 방영됐다.

할머니들은 젊은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도전의 화두를 던지며 반향을 일으켰다.

래퍼 강성군 씨는 "처음에는 진짜 할머니들이 따라오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다"면서 "하지만 할머니들이 조금씩 랩이라는 장르를 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꾸준히 노력했다. 가사에는 할머니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담겨 있어 우리 서로 랩을 하면서 한없이 불되고 울었다"고 회상했다. /순창=정영민 기자 jyg@kwangju.co.kr

'동학농민혁명사' 발간 정읍시 "대중 인식 확장 기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혁명 발상지의 공지를 높이기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제2의 동학농민혁명으로 평가 받고 있는 기해농민봉기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서술한 '정읍동학농민혁명사'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책자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의 산하 연구기관인 동학역사문화연구소에서 조광환 소장, 박정주 부소장, 이진우 운영위원이 함께 저술했다.

이 책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봉건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부터 동학농민군의 최초이자 최대의 승리인 황토전투, 이어진 전주성 점령 등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무대와 전개 과정을 담았다.

또 전주화약 체결 이후 집강소 운영을 통해 농민들이 꿈꿨던 '관민상화' 정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정읍시는 이번 책 발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민중·민족적 의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더 많은 자료가 모여져 온전한 동학농민혁명사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동학농민혁명에 깊은 관심과 역사적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해경 밀입국 원천 차단

해상 특별 감시체계 가동

선박 감시 강화·순찰인력 확대

군산해양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무기한으로 선박 감시 강화와 순찰 인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해상 특별 감시체계'를 마련,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소형 모터보트(중국어인 3명 승선)가 해경에 검거되면서 잠시 수그러들었던 밀입국 시도가 또다시 활동을 재개한 데 따른 대책이다.

해경은 기상악화가 잦은 겨울철을 맞아 소형 모터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시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해상 특별 감시체계에 돌입,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을 보강하고 해상 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군해안가 감시부대는 출입항 기록이 없는 선박에 대한 추적감시를 강화하고 기상악화로 소형 선박이 레이더에 포착되기 힘든 경우 경비정을 추가 배치한다.

군산해경은 최근 밀입국 적발 사례에서 보듯 어업인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어업단체와 바닷가 인근 주민들에게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리고 의심 선박을 발견하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시는 광한루원 담장 외벽 630m 구간에 야간경관을 조성했다. <남원시 제공>

"남원 관광, 밤에 더 빛나요"...광한루 등 주요 관광지 야간경관 조성

남원시가 주요 관광지에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남원시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광한루원과 요전 등 주요 관광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명과 투광등이 설치되는 곳은 광한루원 담장

외벽 630m 구간과 승월교 전체 구간을 비롯해 요전 제방길 등으로 관광지 고유의 아름다움에 더해 멋진 야간 풍광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작 중인 승월폭포의 미디어파사드와 춘향문화예술회관의 LED전광판이 내년 4월께 마무리되면 더 많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

을 전망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야경을 제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은 달래주고 남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민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역사문화관광도시 육성 맞춤형 사업 발굴 최종 보고서

고창군은 최근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운영 최종보고회'를 열고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맞춤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개발여건 분석, 관광 실태 조사, 종합환경분석,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역사문화관광지구 등 11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의 주요 내용과 그간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고창의 역사문화관광지구, 고인돌세계유산지구, 산림휴양힐링지구 등 관광 리브랜딩을 통한 생태관광자원개발과 농촌관광활성화, 레저스포츠 관광육성사업 등 관광객 100만 달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이 제시됐다.

고창군은 '한반도 관광일번지 살아 숨쉬는 고창관광'을 비전으로 관광객 100만 시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지 : 22784㎡(6892평) • 건축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매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